

# 금당 이재복의 교학사상 연구

- 보시바라밀과 인욕바라밀을 중심으로 -

이병욱\*

• 목 차 •

I. 서론

II. 금당 이재복의 교학사상의 기본적 입장

III. 금당 이재복의 보시바라밀에 관한 관점

IV. 금당 이재복의 인욕바라밀에 관한 관점

V. 결론

---

\* 중앙승가대학교 강사.

© 『大覺思想』 제41집 (2024년 6월), pp.111-142.

## 한글요약

이 글에서는 금당 이재복의 교학사상 가운데 보시바라밀과 인욕바라밀에 대한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장에서는 이재복의 교학 사상의 기본적인 입장이 「한국불교 포교의 방향」에 나타나 있다고 밝힌다. 여기에는 불교인이 불교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한다는 점, 포교에 관한 것은 우리말 우리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강의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것은 포교용 교재와 관련이 있다는 점, 결국 이러한 활동은 수준 높은 불교인, 곧 포교사를 양성하고 재교육하겠다는 그의 의도와 연결이 된다.

그리고 이재복은 대전불교연수원을 세우고 그곳에 무려 1998회에 이르는 법회를 주관하였다. 3장에서는 보시바라밀에 대한 관점을 살펴본다. 이재복은 보시바라밀을 ‘보편적 정신’에 의거해서 해석하고자 한다. 그것은 플라톤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시를 설명하고자 한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또 이재복은 보시바라밀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보시이고, 음식 보시가 목숨을 보시한다는 내용이다. 4장에서는 인욕바라밀에 대한 관점을 살펴본다. 이재복은 인욕바라밀이 가장 뛰어난 장엄이고 좋은 묘약이라는 주장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인욕바라밀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와 셰익스피어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욕바라밀을 ‘보편적 정신’에서 바라보고자 시도한다.

## 주제어

올바른 견해, 포교용 교재, 포교사, 보편적 정신, 플라톤의 말씀, 음식 보시, 좋은 묘약, 아우구스티누스.

## 1. 서론

용봉(龍峰) 대종사, 금당(錦塘) 이재복(李在福, 1918~1991)은 교육자, 시인, 불교인의 삶을 살았다. 1932년(15세) 계룡산 갑사에 이혼허(李混虛)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고, 그때 받은 범명이 용봉(龍峰)이다. 1935년(18세) 공주 한문서숙(漢文書塾)에서 유교의 사서삼경을 공부하였다. 1940년(23세) 혜화전문학교(현 동국대) 불교과에 입학하였고, 1943년에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1945년(28세) 해방 직후 보문중학원 설립을 추진하였고, 1946년에 보문초급중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다. 1953년 보문고등학교 설립 인가를 받고, 1954년(37세) 보문중고등학교 교장에 취임하였다.<sup>1)</sup>

금당 이재복은 교육자로서 남다른 자취를 남겼다. 1963년(46세)에는 충남 최초로 보문고등학교에 학생상담실을 열고 카운슬링을 통해 학생의 고민상담과 진로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재복이 보문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금기시되었던 씨클 활동을 개방적으로 육성하고 격려해 주었다. 이는 보문고등학교의 교육의 첫째 목표가 인성교육 내지 전인교육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재복은 보문고등학교 학생회 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해 주었다. 고등학교 학생회나 대의원회는 학생이 민주주의를 익히고 리더십을 배울 소중한 기회이다. 대부분의 다른 고등학교와 달리 보문고등학교에서는 지도교사의 간섭 없이 학생이 스스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적 훈련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학생끼리 여야로 갈라져 치열한 논리싸움이 전개되기도 하고, 집단으로 퇴장하고 다시 화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박정희 정권 때 6·8 부정선거(1967년)가 시국의 현안이

1) 「금당 이재복 연보」, 김영호 엮음, 『어느 그리움에 취한 나비일러노 - 금당 이재복의 입체적 조명과 재평가』, 작은숲, 2020, pp.348-349.

된 적이 있었는데, 보문고등학교에서는 아침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서 학교당국의 허락을 받고 6·8 부정선거 규탄 궐기대회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은 이재복의 교육적 신념과 리더십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권위적인 정부가 내릴 박해와 외압을 견디겠다고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행사가 가능할 수 없었다.<sup>2)</sup>

그리고 금당 이재복은 불교계 지도자로서도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1965년(48세)에는 대전시 연합 마하야나불교학생회를 세우고 지도 법사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재복은 대전불교회, 청주보리회,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한국불교 태고종 수련법회 등에서 모두 1천여 회 법회를 주관하였다. 1966년(49세) 대전과 충남지역의 불교대중화·현대화·생활화를 이루기 위해 대전불교연수원을 세웠다. 이는 지역불교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처럼 대전불교연수원을 세운 것은 1980년대 이후 등장한 불교 교양대학의 효시가 되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일요법회는 1991년까지 지속되어 모두 합해서 1998회 법회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또 1989년(72세)에는 태고종 종립대학이었던 동방불교대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1975년(58세) 태고종 포교원장이 되었다.<sup>3)</sup>

이재복의 전집은 모두 8권이다. 이 전집에는 그가 강의한 자료가 모여있다. 이 자료에서는 경전, 율장, 논서를 인용하였는데, 그 인용한 문헌의 종류가 모두 합해서 대략 200개에 이른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한역대장경(고려대장경과 신수대장경)과 한글대장경에서 주로 인용하고 있다. 이처럼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불교학을 공부하는 학자도 처음 접하는 내용이 많다고 할 정도이다. 이는 그만큼 이재복의 학문의 폭이 넓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sup>4)</sup>

2) 황의동, 「교육에 바친 일생, 금당 이재복 선생」, 김영호 엮음, 『어느 그리움에 취한 나비일러노 - 금당 이재복의 입체적 조명과 재평가』, pp.172-176.

3) 김방룡, 「우리시대의 보살승, 용봉 재복」, 김영호 엮음 『어느 그리움에 취한 나비일러노 - 금당 이재복의 입체적 조명과 재평가』, pp.57-58.

이재복의 불교사상에 관한 선행연구는 윤영우<sup>5)</sup>와 김방룡<sup>6)</sup>의 연구가 전부이다. 김방룡의 연구에서 이재복 불교사상의 전반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재복의 불교사상에 관한 연구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성과를 수용하고 이재복의 교학(불교)사상의 기본적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 그의 교학사상 가운데 보시바라밀(또는 보시)과 인욕바라밀(또는 인욕)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재복의 교학사상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데 금당 이재복의 전집을 보면 불교사상에 관한 것은 자료집으로서 자료를 제시하였을 뿐이고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을 소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보시바라밀의 경우,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2권)』, pp.85-166에 걸쳐서 다양한 보시바라밀의 내용을 소개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다양한 보시바라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비록 이재복이 명확히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재복이 제시한 자료의 요점을 파악해서 그것이 이재복이 말하고자 한 내용이었다고 접근하고자 한다. 이런 방법론이 자료가 적을 때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재복 전집의 경우처럼 다양한 자료가 제시될 경우에는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욕바라밀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글의 전개에 대해 밝히면, 2장에서는 이재복의 교학사상의 기본적 입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3장에서는 이재복의 보시바라밀에 관한 관점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이재복의 인욕바라밀에 관한 관점을 검토하

4) 김방룡, 「우리시대의 보살승, 용봉 재복」, 김영호 엮음, 『어느 그리움에 취한 나비일러노 - 금당 이재복의 입체적 조명과 재평가』, p.59.

5) 윤영우, 「용봉대종사와 불교」, 김영호 엮음, 『어느 그리움에 취한 나비일러노 - 금당 이재복의 입체적 조명과 재평가』, pp.75-107.

6) 김방룡, 「금당 이재복의 생애와 불교사상의 특징」, 『충청문화연구』 14집,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2015, pp.5-27.

김방룡, 「우리시대의 보살승, 용봉 재복」, 김영호 엮음, 『어느 그리움에 취한 나비일러노 - 금당 이재복의 입체적 조명과 재평가』, pp.40-74.

고자 한다.

## II. 금당 이재복의 교학사상의 기본적 입장

이재복은 1981년 7월 7~8일 태고종 수련법회에서 「한국불교 포교의 방향」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불교의 대중화·현대화를 위해서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포교 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는 이재복 자신이 어느 정도 실천한 내용이기도 하다. 나아가 「한국 불교 포교의 방향」이 이재복 교학사상의 전반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한다. 붓다의 설법(교화) 정신은 인간의 자기 자각에 있다. 그러므로 청중이 들어서 이해할 수 없는 설법은 무의미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더 바르게 지혜와 자비의 참뜻을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곧 붓다의 근본정신과 직결되는 과제이다. 따라서 종래의 ‘기복 중심의 불교’는 ‘교리 중심의 불교’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하고, 동시에 한국불교의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 온갖 무속적인 요소는 마땅히 소탕되어야 한다.

둘째, 포교에 관한 모든 일이 우리말 우리글로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불교도 다른 문화유산과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중국[漢]문화에 의존해 오던 것을 과감하게 우리말 우리글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포교할 때 사용되는 성전(聖典)은 따로 엮어져야 한다. 어떤 종파의 불자이든지 다 함께 수지·독송·강설(講說)할 수 있도록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성전이 간행되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모든 법회, 모든 불사, 모든 법요 의식에 쓰이는 축원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식문을 모두 우리말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의식과 그 절차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같이 쓰고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통일되어야 한

다.

셋째, 포교용 교재가 제작되어야 한다. 설교집, 예화집(例話集) 같은 포교서적은 물론이고, 과도(학습지도용 지도, 그림 등을 말함)·슬라이드·영화·음반 등 현대감각에 맞는 시청각 교재와 각종 간행물이 제작 유포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불교 중립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교 교본은 중단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야 한다.

넷째, 대중매체의 활용에 힘써야 한다. 곧 매스컴을 많이 이용하여야 한다. 텔레비전, 라디오의 방송국과 일간 신문사 설립은 아직은 먼 앞날의 일이다 하더라도, 대중매체의 포교를 위해서는 남의 시설이라도 이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포교사의 양성, 포교사의 재교육이 긴급하다. 포교사는 인간의 정신, 인간의 품성, 인간의 문제해결을 상담하고 지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포교사는 그야말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교양과 덕망, 그리고 교화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히 설법하는 것, 곧 수의설법(隨宜說法)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포교사는 다른 의사나 법관과 같이 하나의 전문직이다. 그러므로 변천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서 전문직에 따르는 수련과 재교육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불교의 각 종파는 모든 편견을 버리고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 불자가 다 같이 경계해야 할 일은 모두 자기류의 선입견에 얽매이는 일이다. 자기가 소속하는 종파나 자기가 의지하는 교조(教條) 때문에 다른 종파를 처음부터 외면해 버리는 태도는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일체의 편견과 집착을 배제하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승가상(僧伽像)을 형성하는 것으로 포교의 방향을 재정립함이 마땅하다.<sup>7)</sup>

7) 『침묵 속의 끝없는 길이어 - 문학집(7권)』,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pp.427-429.

김방룡, 앞의 논문, 김영호 엮음, 『어느 그리움에 취한 나비일러노 - 금당 이재복의 입체적 조명과 재평가』, pp.60-64.

금당 이재복이 대전불교연수원에서 1966년 5월 8일부터 일요일법회에서 1998회 강의하였고, 그 자료가 그의 전집(2권~6권)에 실려있는데, 이는 앞에서 서술한 내용, 곧 「한국불교 포교의 방향」에서 제기한 문제를 이재복 자신이 어느 정도 실천에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복이 대전불교연수원에서 일요일법회를 개최한 것은 우선, 불교대중이 불교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일요일법회에서 강의한 자료가 그의 전집 2권~6권에 실려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말 우리글로 풀어서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강의자료를 배부해서 강의한 점에서 포교용 교재를 제작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냥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않고 강의자료를 배부하고, 그것이 뒤에 그의 전집 2권~6권에 실리게 되었다. 이는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포교용 교재를 만들 것을 염두에 두고, 그 포석으로 강의자료를 준비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리고 대전불교연수원에서 일요일법회를 개최한 것은 전문성을 가진 불교신도, 곧 포교사를 양성하고 재교육해야겠다는 그의 의도와 연결성이 있다. 따라서 이재복 전집(2권~6권)에 있는 대부분 자료는 그가 「한국불교 포교의 방향」에서 제시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한국불교 포교의 방향」에서는 모두 6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재복의 전집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그 가운데 4가지 사항이 충족되었다. 비록 2가지 사항(대중매체의 활용, 불교의 각 종파는 편견을 버릴 것)이 빠져있지만, 대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불교 포교의 방향」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그의 전집(2권~6권)에 실려있는 자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 Ⅲ. 금당 이재복의 보시바라밀에 관한 관점



금당 이재복의 전집 2권,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에서는 보시바라밀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선정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 내용은 크게 2단락으로 나뉜다. 첫째, 보시바라밀에 관한 ‘기본적 설명’과 ‘보편적 정신’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보시바라밀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알아본다.

### 1. 보시바라밀에 관한 기본적 설명과 보편적 정신

이 항목에서는 불교개설서에 소개된 보시바라밀에 관한 내용이 이재복의 전집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고, 또 이재복이 보시바라밀을 불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 정신’에 의거해서 해석하고자 한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불교의 이해와 실행』을 포함한 불교 개설서에서 보시바라밀을 설명할 때, 세 가지 보시를 설명한다. 첫째, 재시(財施)는 재물을 베풀어 주는 것이고, 둘째 무외시(無畏施)는 두려움을 없애 주는 것이며(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는 것), 셋째 법시(法施)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다.<sup>8)</sup> 이러한 내용은 이재복의 전집에서도 발견된다.<sup>9)</sup>

그리고 『불교학개론』(동국대 출판부)에서 『금강경』의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것)와 반야경 계열의 ‘삼륜(三輪)의 청정함’[보시할 때 보시하는 사람, 받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sup>10)</sup>, 이러한 내용도 이재복의 전집에서 발견된다.

8)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편, 『불교의 이해와 실행』, 조계종출판사, 2004, p.231.

9)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금당 이재복선생 추모사업회, 2009, p.149.

10) 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개정판 불교학 개론』, 동국대출판부, 1988/2012, p.167.

이재복의 전집에서 ‘무주상보시’를 소개하고 있다. ‘무주상보시’는 외형적으로 보시를 행하고, 내면에서는 어떤 집착도 없는 것, 곧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무주상보시’는 외형적으로 ‘보시’라는 윤리적 행위를 행하고, 나아가 내면에서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곧 ‘내면의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재복의 전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수보리(須菩提)여! 보살이 법(法: 대상의 존재)에 마땅히 머물 것이 없이 하여 보시를 행할 것이니, 이른바 빛깔[色]에 머물지 않고서 보시할 것이며, 소리[聲], 냄새[香], 맛[味], 감촉[觸], 법(法: 추상적 존재)에 머물지 않고서 보시할지니라. 수보리여! 보살이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여 형상에 머물지 아니할 것이니 무슨 까닭인가? 만일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아니하고서 보시하면 그 복덕(福德)을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sup>11)</sup>

그리고 반야경전 계열에서는 보시를 할 때 삼륜(三輪)이 청정할 것을 말한다. 이는 보시할 때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시하는 사람’, ‘보시를 받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시’라는 윤리적 행위를 하고, 내면에서는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하라는 것은 앞에 소개한 ‘무주상보시’와 같은 내용이지만, 그 구체적 표현에서 조금 다르다고 하겠다. 보시할 때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곧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에는 ‘보시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보시받는 사람’에게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보시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복은 이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1)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p.155.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대정장8, 749상). 인용문은 일부 윤문을 하였고, 이는 뒤의 인용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것을 세간을 벗어난[出世間] 보시바라밀이라 하는가? 이른바 세 가지가 맑고 깨끗한 것[三分淸淨, 三輪淸淨]이니,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보살마하살(菩薩摩訶薩)이 보시를 할 때에 나[我]라는 것을 얻을 수 없고, 받는 이[受者]라는 것도 보지 않으며, 보시하는 물건[施物]이라는 것도 얻을 수 없고, 또한 [보시에 대한] 갚음[報]이라는 것도 바라지도 않는 것이니,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세 가지가 맑고 깨끗한[三分淸淨] 보시바라밀이라 하느니라.<sup>12)</sup>

이처럼, 이재복의 전집에서는 보시바라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곧 세 가지 보시(재시, 무외시, 법시), ‘무주상보시’, ‘삼륜(三輪)의 청정함’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이재복은 ‘보시 정신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Platōn, B.C. 427 ~ 347)은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행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보시’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보시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려는 것이고, 결국 이는 플라톤의 말로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이재복이 보시정신을 불교사상에만 한정하지 않고, 조금 더 보편적인 틀로 이해하고자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이재복이 그의 전집에서 분명히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전후 관계로 보아서 이처럼 추론할 수 있다. 이재복이 소개하는 플라톤의 말은 다음과 같다.

사람은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했다면 그만큼 그 자신에게도 행복이 온다. 남을 때린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sup>13)</sup>[플라톤]

12)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p.153.

『마하반야바라밀경(摩訶般若波羅蜜經)』, 제26 「무생품(無生品)」(대정장8, 272중)

## 2. 보시바라밀의 다양한 측면

여기서는 보시바라밀의 여러 측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의 3단락으로 전개된다. 첫째, 보시를 행하는 마음 자세 등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가난한 사람이 행하는 보시바라밀 등을 살펴보고, 셋째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쇼카왕의 보시행에 대해 알아본다.

### 1) 보시를 행하는 마음 자세와 바람직하지 못한 5가지 마음 자세

이재복은 ‘보시를 행하는 마음 자세’와 ‘바람직하지 못한 5가지 마음 자세’에 대해 거론한다. 먼저, 보시를 행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 살펴본다. 보살이 보시를 행할 때 자애로운 마음으로 평등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며, 보시를 하고 난 뒤에는 보시하였다는 생각마저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복의 전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보시를 행할 적에는 중생에게 자애로운 마음[慈心]으로 평등하게 대할 것이니, 마치 자식을 생각하듯이 할 것이다. 또 [보살마하살이] 보시를 행할 때에는 중생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悲愍心]을 일으켜야 할 것이니, 마치 부모가 병든 자식을 보는 것처럼 할 것이다. [보살마하살이] 보시를 행할 적에는 그 마음의 환희(歡喜)가 마치 부모가 자식의 병이 낫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이다. 이미 보시를 한 다음에는 그 [보시하였다는] 마음을 놓아버려야 할 것이니, 마치 부처가 자식이 장성해서 스스로 생활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할 것이다.<sup>14)</sup>

앞에서 ‘보시를 행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이재복은 보시를 즐겁게 실천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바람직

13)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p.113.

14)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p.144.

『대반열반경』 제15권 「범행품」 제8-1(대정장12, 455상)

하지 못한 5가지 마음 자세'를 거론한다. 그것은 화내는 마음, 인색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몸과 목숨을 아끼는 마음, 인과(因果)를 믿지 않는 마음이다. 이재복은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남자여! 만약 즐겨 보시하고자 한다면 다섯 가지 일(마음자세)을 깨뜨려야 한다. 첫째, 화내는 마음이고[瞋心], 둘째 인색한 마음이며[慳心], 셋째 질투하는 마음이고[妬心], 넷째 몸과 목숨을 아끼는 것이며, 다섯째 인과(因果)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일(마음자세)을 깨뜨려야 항상 즐겁게 보시할 수 있다.<sup>15)</sup>

## 2) 가난한 사람의 보시바라밀과 음식을 보시하는 것의 중요성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의 보시행'에 대해 알아보고, 그다음으로 '음식을 보시하는 것'은 곧 목숨을 보시함과 같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둘의 공통점은 '가난한 사람'에 있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보시할 것이며, 또 가난한 사람이 굶주리고 있을 때 음식을 보시하는 것은 곧 목숨을 보시함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보시의 일반적 형태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주는 것이므로, 재산이 있어서 보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재복은 가난한 여인 난타(難陀)가 구걸해서 한 푼[一錢]을 얻고, 그것으로 기름을 사서, 큰 서원, 곧 모든 중생의 어리석음을 사라지게 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서 등(燈)을 보시하였고, 그 일로 인해 미래에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授記)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이는 보시의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재복의 전집에서는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15)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p.97.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 제19 「잡품(雜品)」(대정장24, 1054하)

난타(難陀)라는 여인이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때 국왕 등 신분 높은 사람과 일반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제자에게 공양하는 것을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공양하리라고 마음을 내었다. 이 난타 여인은 구걸해서 한 푼[一錢]을 얻고 그것으로 기름을 사러 갔는데, 기름집 주인이 이 난타 여인의 사연을 듣고 기름을 2배로 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난타 여인은 사찰로 가서 여러 등불 가운데 다음과 같이 서원(誓願)을 세웠다. “내가 지금 가난해서 이 작은 등(燈)으로 부처님에게 공양드리니, 이 공덕으로 내가 다음 세상에 지혜를 비추어서 모든 중생의 더러움과 어둠을 제거하겠나이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예를 드리고 돌아갔다. 깊은 밤에 다른 모든 등(燈)은 꺼졌는데, 오로지 이 등(燈)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때 목건련(目健連)존자가 날이 밝아오자 등불을 걷으려고 하였는데 한 개의 등불이 홀로 빛나고 심지가 새로 불을 켜 듯이 생생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목건련 존자가 이 등불을 끄려는 것을 보고 이 등불은 성문(聲聞)의 힘으로 끌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이 등불은 중생을 널리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 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난타 여인이 미래에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하였다.<sup>16)</sup>

그리고 이재복은 가난해서 보시할 형편이 안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것도 보시하는 행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만일 가난한 사람이  
보시할 재물이 없거든  
다른 사람이 보시 닦음[修]을 볼 적에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이라도 내면  
따라서 기뻐하는 것의 복의 값[福報]은

16)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pp.87-88.  
『현우경(賢愚經)』 20권, 제20 「빈녀난타품(貧女難陀品)」(대정장4, 370하).  
내용을 축약하였음.

보시한 행위와 다름이 없느니라.<sup>17)</sup>

또 이재복은 다른 사람이 복을 짓는 일(보시)을 하는 것을 보면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고 싫증을 내지 않는다면, 이런 행위가 보시하는 것에 비해 어떤 때는 뛰어나기도 하고, 혹은 보시하는 것과 대등할 경우도 있으며, 혹은 보시하는 것의 일부분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재복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난하다고 해서 보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보시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 도와주는 행위에 기뻐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시하는 것보다 뛰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선남자여! 천하사람이 비록 가난하고 어렵다하더라도, 그 몸마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니, 만일 그 몸이 있다 하면, 다른 사람이 복을 짓는 일[福] 하는 것을 볼 적에 몸소 가서 도와주되 기뻐하고 싫은 생각을 내지 말라. 이것을 시주(施主)라고 하고, 복덕(福德)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어느 때는 [보시하는 행위의] 한 부분이 될 것이고, 어느 때는 [보시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 될 것이고, 어느 때는 [보시하는 행위보다] 더 훌륭한 것이 될 것이다.<sup>18)</sup>

그다음으로, 이재복은 ‘음식을 보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중생은 죽기 때문에 ‘음식을 보시하는 것’이 결국은 ‘목숨을 보시하는 것’이 된다. 특히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음식을 보시하는 것’은 목숨을 구하는 것이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음식을 보시하는 것’은 작은 일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생의 삶에서는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목숨을 보시하는 것’처럼 큰일이 된다. 이 내용은 작은 보시를 실천한 것이 알고

17)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p.111.

『과거현재인과경(過去現在因果經)』(대정장3, 652상)

18)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p.110.

『우바세계경(優婆塞戒經)』 제4권, 제19 「잡품(雜品)」(대정장24, 1056상)

보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무엇을 목숨을 보시하는 것[施命]이라 하는가? 모든 중생은 음식[食]에 의지해서 몸과 목숨을 보존한다.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면, 일주일도 넘기지 못하고, 문득 수명이 다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보시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시하는 것이다. 목숨을 보시하는 사람은 어느 세상이나 장수할 것이고, 하늘세상[天世間]에 태어나서 수명이 요절하지 않을 것이고, 의복과 음식은 자연스럽게 풍부하고, 재산은 부유하여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sup>19)</sup>

### 3)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시행과 아쇼카왕의 전생의 보시행

이 항목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시행과 아쇼카왕이 전생에 행한 보시행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이재복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시행에 대해 경전에 의거해서 말한다. 부처님도 세상에서 존경받는 세존(世尊)의 위치에 있는 분인데, 어느 장로 비구의 몸을 씻어주었다. 이 장로 비구는 병들어서 몸이 더러운 상태이고 냄새가 나서, 같은 사찰에 있는 승려들에게도 외면받는 존재였다. 그런데도 부처님은 몸소 이 냄새 나는 장로 비구를 씻어준 것이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여래가 세간에 출현한 이유는 바로 곤궁하고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여기서 부처님이 보시를 강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시는 불교의 신도만이 실천하는 덕목이 아니고, 부처님도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라는 것이다. 이재복의 전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느 때 장로 비구가 오랫동안 병들어서 힘이 빠진 상태였고, 몸은 말랐고 더러웠다. [이 장로 비구]가 현제정사(賢提精舍)에 누워있었는데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다. 모든 비구가 그 [장로 비구의] 냄새를 맡고는 모두 천시하였다. 부처님은 제석천(帝釋天)으로 하여금 더운 물[湯水]을 가져오도록 해서

19)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pp.117-118.

『시식획오복보경(施食獲五福報經)』(대정장2, 855중)



부처님은 금강(金剛)의 손으로 병든 비구의 몸을 씻어주었다. 국왕과 신하와 천룡 귀신과 아승기(阿僧祇: 셀 수 없이 많음)의 사람이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예를 행하고 부처님에게 물었다. “부처님은 세존이시고, 삼계(三界)에서 비교할 수 없고, 도덕을 이미 갖추고 있는데, 어찌하여 뜻을 굽혀서 이 병들고 더러운 비구를 씻으십니까?” 부처님이 국왕과 많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여래가 세간에 나타난 까닭은 바로 이런 곤궁하고 외로운 사람을 위한 것일 뿐이다. 병들어 말라빠진 사문(沙門)과 도사(道士)나 또 모든 가난하고 외로운 늙은이를 도와서 공양(供養)하면 그 복(福)은 한량없을 것이니,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될 것이다. 비유하면 [인더스강의] 다섯 물줄기 같아서 복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 공덕(功德)이 차츰 쌓이면 반드시 도(道)를 얻으리라.”<sup>20)</sup>

그다음으로, 이재복은 경전에 근거해서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Asoka)왕이 전생에 행한 보시 공덕에 대해 말한다. 어린아이가 흙장난을 하다가 부처님을 뵈고 흙장난하던 흙으로 부처님에게 보시하고자 하였는데, 키가 작아서 할 수 없자 다른 아이의 어깨를 밟고서 부처님에게 보시하였다. 이에 부처님은 이 흙을 자신의 방에 칠하고 방 주변의 한쪽에 바로도록 하였다. 이 공덕으로 인해서 흙을 보시한 어린아이는 부처님이 열반한 지 백 년 뒤에 아쇼카왕이 되었고, 그 어린아이가 보시하도록 도운 아이는 대신(大臣)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시의 공덕에 관한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 이재복은 이런 내용을 찾아서 전하고 있다.

여러 아이가 길에서 장난을 벌이고 있었는데, 각자가 흙을 모아다가 궁전을 짓고, 식량창고도 짓고, 재보(財寶)와 오곡(五穀)을 삼기도 하였다. 한 어린아이가 멀리서 부처님이 오는 것을 보았는데, 부처님의 광명과 모습을 보고는 공경의 마음이 안에서 일어나서 환희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이 아이는 부처님에게] 보시하고자 마음이 생겨나서 [흙으로 만든] 창고 속에 곡식이라

20)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p.94.

『법구비유경(法句譬喻經)』, 제18 「도장품(刀仗品)」(대정장4, 591하)

고 이름 붙인 것을 손으로 움켜쥐고, 부처님에게 보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몸이 작아서 [부처님에게] 이를 수 없었고, 다른 작은 아이에게 내가 너 위에 올라 타서 보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작은 아이는 기뻐하여 그렇게 하자고 대답하였다. 곧 [어린아이는 작은 아이의] 어깨를 밟고 흙(곡식이라 이름한 것)을 부처님에게 바쳤다. 부처님은 발우를 내리고 머리를 낮추고 흙(곡식이라 이름한 것)을 받았다. [부처님은] 흙(곡식이라 이름한 것)을 받고서 아난(阿難)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흙)을 가지고 나의 방에 칠하라”고 하였다. [부처님은] 걸식을 마치고 다시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으로 돌아갔다. 아난이 흙으로 부처님의 방바닥을 칠하고, [부처님의 방 근처의] 한쪽을 [흙으로] 칠해서 그 흙을 모두 사용하였다. [아난이] 의복을 정제하고 부처님에게 아뢰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하기를 “이전에 어린아이가 기뻐하면서 흙(곡식이라 이름한 것)을 보시하였고, 그 흙은 부처님의 방을 바르고 [부처님의 방 근처] 한쪽을 칠하는 데 충분하였다. 이 공덕으로 인해서 내가 열반에 들어간 지 백 년 뒤에 [그 어린아이는] 아쇼카(阿輸迦)라고 부르는 국왕(國王)이 될 것이다. 그다음의 [보시하도록 도와준] 어린아이는 대신(大臣)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염부제(閻浮提: 인간세계)의 모든 국토를 다스릴 것이고, 삼보(三寶)를 흥하게 할 것이며, 널리 [승가에] 공양할 것이며, 사리를 널리 분포시켜서 염부제(閻浮提)에 두루 하도록 할 것이다. 나(부처님)를 위해서 팔만사천의 탑을 세울 것이다”고 하였다.<sup>21)</sup>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재복은 보시바라밀을 설명할 때 세 가지 보시(재시, 무외시, 법시), ‘무주상보시’, ‘삼륜의 청정함’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불교개설서에서도 보시바라밀을 설명할 때 제시되는 것으로 이것은 ‘기본적 설명’에 속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재복은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면서 보시를 ‘보편적 정신’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이재복은 보시바라밀의 다양한 측면을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난한 사람의 보시’와

21)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pp.98-99.  
『현우경(賢愚經)』 제17권, 제17 「아수가시토품(阿輸迦施土品)」(대정장4, 368하)

‘음식 보시의 중요성’이라고 하겠다.

#### IV. 금당 이재복의 인욕바라밀에 관한 관점

4장에서는 이재복의 인욕바라밀에 관한 관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 내용은 3단락으로 전개된다. 첫째, 인욕에 대한 정의와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인욕바라밀이 가장 뛰어난 장엄이라는 점에 대해 검토하며, 셋째 초기불교의 인욕 실천과 그 ‘보편적 정신’에 대해 알아본다.

##### 1. 인욕에 대한 정의와 그 의미

인욕(忍辱)은 일반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 다시 말해서, 모욕이나 박해를 참고 견디어 마음을 안정시키고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이재복은 인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욕이라는 것은 모든 업신여김과 욕됨[侮辱]을 잘 참고, 또는 남의 괴롭힘[惱害]을 잘 견디어서 앙갚음[復讐]이나 미움, 원한, 저주, 후회 같은 생각을 품지 않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또한 인욕은 남의 잘못이나 허물[非過]을 항시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寬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sup>22)</sup>

그리고 나고 이재복은 사바세계(娑婆世界)와 관련해서 인욕을 설명한다. “사바(娑婆: saha)라는 말은 견디고 참는다[堪忍]는 뜻이다. 즉 지난 세상[前世]에 지은 업갚음[業報]으로 이 세상[今生]에 태어난 우리는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苦難]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뜻에서 사바세계(娑婆世界, 忍土)라고 이름한 것이다.”<sup>23)</sup>

22)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p.226.

또 이재복은 『금강경(金剛經)』에서 제시된 부처님의 전생의 수행담을 소개하면서 인욕의 현대적 의미, 곧 오늘날에는 더욱 요청되는 가르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처님께서 지난 세상[過去世]에 일찍이 보살(菩薩)의 몸으로서 인욕의 행[忍辱行]을 닦으실 적에 그때 무지한 가리왕(歌利王)이 칼을 휘둘러 보살의 몸을 자르고 팔다리를 끊었지만은 그러나 보살은 가리왕에 대하여 원한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가 있다. 무상(無相)과 무아(無我)의 도리를 가르쳐주신 『금강경』에 보이는 이 이야기야말로 진실로 사람이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기를 일삼듯이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숙연히 가슴을 여미게 하는 거룩한 법문이 아닐 수 없다.”<sup>24)</sup>

## 2. 인욕바라밀은 가장 뛰어난 장엄이고 좋은 묘약이다

인욕바라밀을 실천하면 가장 뛰어난 장엄이 되고 좋은 묘약이 된다. 우선, 이재복은 인욕을 잘 수행하면 가장 뛰어난 장엄이 되고 가장 훌륭한 재물이 된다고 소개한다.

인욕에 잘 머무르면, 첫째가는 장엄이 되나니, 이것은 가장 뛰어난 재물이어서 세상의 보배로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라.<sup>25)</sup>

또 이재복은 인욕이 화를 내는 독 기운을 제어하는 좋은 묘약이라고 소개한다. 인욕의 행을 닦아야 바른길에 들어설 수 있고, 또 인욕은 공덕의 창고라고 소개한다. 아무튼, 이재복은 인욕의 소중함을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p.226.

24)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pp.226-227.

25)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p.238.

『제법집요경(諸法集要經)』 8권, 한글대장경, p.325, [한글대장경 아카이브]

인욕(忍辱)은 묘하고 좋은 약(妙良藥)과 같아서 성내는 독 기운(瞋毒)을 능히 치료하니, 그러한 인욕의 힘을 따라서 더욱더욱 독 기운이 일어나지 않게 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밝은 지혜(明慧)가 없어서 시각장애인(소경)처럼 보이는 것이 없나니, 인욕의 밝은 등불 밝혀 들고 이끌어서 바른길[正道]에 오르게 하여라. 성내는 깊은 허물은 험악한 들판과 같나니, 어떤 사람이 인욕의 행[忍辱行]을 갖추면 그것을 잘 뛰어넘으리라. 만일에 인욕의 행을 닦지 않으면 바른길을 미혹(迷惑)하여 잃어버리니, 나쁜 길[惡道]의 괴로움을 떠나려 하면 인욕이 아니고야 어찌 면하랴? 어떤 사람이 인욕을 행하면 밤낮으로 편안함을 얻나니 모든 근심 떠나고 뒷 세상에는 언제나 단정(端正)하리라. 인욕은 공덕(功德)의 곡간(藏)이니, 착한 사람은 잘 지키고 뜻으로 잘 조복(調伏)하면 번뇌(煩惱)에 불살라지지 않으리라.<sup>26)</sup>

### 3. 초기불교의 인욕 실천과 보편적 정신

여기서는 초기불교(석가모니와 그의 제자)에 나타난 ‘인욕의 실천’에 대해 알아보고, 아울러 아우구스티누스와 셰익스피어의 말을 통해 ‘인욕의 보편적 정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불교를 전파할 때 생각과 신념을 달리하는 사람에게 시달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재복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욕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여준다. 그것은 음식을 줄 때 상대방이 그 음식을 받지 않으면 결국 그 음식은 처음에 주었던 사람에게 되돌아오듯이, 모욕을 받을 때도 그 모욕을 수긍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모욕은 원래의 사람에게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의 인용문 [『제법집요경(諸法集要經)』8권]과 결부해서 판단하면 이와 같이 인욕을 실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빛내는 최고의 장엄이 된다. 이재복의 전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6)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pp.242-243.

『제법집요경(諸法集要經)』 8권, 한글대장경, p.326, [한글대장경 아카이브]

어느 때 젊은 바라문 빌란기카[賓耆迦]는 부처님께 나아와서 부처님을 맞대고 추악한 말로 성내고 꾸짖었다. 그때에 부처님께서서는 말씀하시었다. “혹은 어느 좋은 날에 그대는 그대의 종친(宗親)과 권속(眷屬)을 모을 수 있겠는가?” “그리할 수 있나이다. 고타마(부처님)이시여.” “만일 그대의 종친이 음식을 받아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받아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도로 내 것이 되나이다.” 부처님께서서는 말씀하시었다. “그대도 그와 같다. 부처님[如來]을 맞대고 추악한 말로 욕하고 꾸짖더라도 내가 끝내 받지 않는다면, 그 꾸짖음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는가?” ... 그때 부처님께서서는 곧 계승으로 말씀하시었다.

성냄 마음 없는데 무슨 성냄 있으랴?  
 바른 생활[正命]로써 그것을 행복받고  
 바른 지혜[正智]로 마음 자유롭거니[解脫]  
 지혜로운 사람은 성냄이 없느니라.  
 성냄으로 성냄을 갚는 사람  
 그는 바로 그 나쁜 사람이니라.<sup>27)</sup>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먹고 꾸짖음을 당하더라도, 그 마음이 청정해서 아무런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렇게 욕을 하고 꾸짖음을 행한 사람이 악업을 짓는 것이라고 한다. 이 내용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인욕을 행한 사례에 속한다.

어느 때 욕쟁이[健罵] 바라드바자[婆羅豆婆遮] 바라문은 추악한 말로 욕하고 꾸짖으면서, 흠을 쥐어 부처님께 끼얹었다. 그때 마침 거슬림 바람[逆風]이 일어나서 그 흠이 거꾸로 날려서 도리어 자신의 몸으로 돌아갔다. 그에 부처님께서서는 계승(偈頌)으로 말씀하시었다.

사람이 성내거나 원한 없는데

27)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pp.236-237.  
 『잡아함경(雜阿含經)』 42권, 『빈기가경(賓耆迦經)』, 한글대장경, pp.1733-1735,  
 [한글대장경 아카이브]

그를 보고 욕하고 꾸짖더라도  
 그 마음이 청정해서 맺힌 번뇌[垢]가 없으면  
 그 허물 도리어 자신에게 돌아가나니  
 마치 흙을 상대방에게 끼었더라도  
 거슬림 바람이 도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 같네.

때에 그 바라문은 부처님께 여쭙었다. “잘못을 참회하나이다. 부처님[瞿曇]이 시여!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착하지 않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부처님 앞에서 추악한 말로 욕하고 화를 내고 꾸짖었는지 모르겠나이다.”<sup>28)</sup>

초기불교에서 석가모니의 인육만이 빛나는 것이 아니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부루나(富樓那, Pūrṇa) 존자의 인육의 실천도 스승인 석가모니 부처님께 뒤지지 않는다. 부루나 존자가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서쪽에 있는 슈라세나(Sūrasena) 지방으로 가겠다고 하자, 석가모니는 그 마음 자세에 대해 물었다. 부루나는 슈라세나 사람이 자신을 헐뜯고 욕을 하면 자신을 손으로 때리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만약 슈라세나 사람이 자신을 손으로 때리면 칼로 찌르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만약 슈라세나 사람이 칼로 찌른다면 죽이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만약 슈라세나 사람이 자신을 죽인다면, 방편으로 자신을 해탈하게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답한다. 여기서 부루나의 인육 정신을 잘 읽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이재복의 전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루나(富樓那)는 부처님께 여쭙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미 부처님께 서 간략히 말씀하신 가르침을 받자왔나이다. 저는 이제 서쪽에 있는 슈라세나로 가서 세상 사람을 교화하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서는 말씀하시었다. “서쪽의 슈라세나 사람은 흉악하고 성급하며

28)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pp.239-240.  
 『잡아함경(雜阿含經)』 42권, 『건매경(健罵經)』(대정장2, 307중-하)  
 한글대장경, pp.1736-1737, [한글대장경 아카이브]

거칠고 사나와서 꾸짖기를 잘한다. 부루나여! 그대가 만일 그들의 험뜯고 욕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루나는 부처님께 여쭙었다. “부처님[世尊]이시여, 만일 서쪽의 슈라세나 사람이 눈앞에서 꾸짖으며 험뜯고 욕을 한다면, 저는 ‘이 슈라세나 사람은 착하고 슬기롭구나. 비록 내 앞에서 나무라고 꾸짖기는 하지만, 그들은 나를 아직 손이나 돌로 때리지는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겠나이다.” “저 서쪽 슈라세나 사람이 나무라거나 욕만 한다면 그대는 혹시 참을 수 있지만, 다시 손이나 돌로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부처님이시여! 그들이 만일 손이나 돌로 저를 때린다면 저는 ‘슈라세나 사람은 착하고 슬기롭구나. 비록 손이나 돌로 나를 때리지만 칼이나 몽둥이를 가지고 해치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겠나이다.” “만일 그들이 칼이나 몽둥이로 그대를 해친다면 그대는 다시 어떻게 하겠는가?” “부처님이시여. 그들이 칼이나 몽둥이로 저를 대한다면, 저는 ‘슈라세나 사람은 착하고 슬기롭구나. 비록 칼이나 몽둥이로 나를 대하지 마는 죽이지는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었다. “가령 그들이 그대를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부루나는 부처님께 여쭙었다. “부처님이시여! 만일 그들이 저를 죽인다면 저는 ‘모든 부처님 제자는 마땅히 이 몸을 싫어하고 근심스레 여기나이다. ... 그런데 저 서쪽의 슈라세나 사람은 착하고 슬기로우니 나의 썩어 무너질 몸을 조그마한 방편(方便)으로 곧 자유롭게[解脫] 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나이다.”

“착하다! 부루나여! 그대는 인욕을 잘 배웠구나! 그대는 이제 슈라세나 사람 속에 가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대는 이제 가서 구제하지 못한 사람은 구제하고, 편안하지 못한 사람은 편안하게 하며, 열반(涅槃)을 얻지 못한 사람은 열반을 얻게 하는 것이 좋으니라.”<sup>29)</sup>

그런데 이제복은 인욕(바라밀)을 설명할 때 불교의 문헌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교부철학의 대표적 인물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와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 셰익스피어

29)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pp.241-242.

『잡아함경』 13권, 『부루나경』, 한글대장경, pp.484-486, [한글대장경 아카이브]



(Shakespeare, 1564~1616)의 말도 아울러 거론한다. 인옥바라밀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인옥바라밀을 통해 열반을 얻는다고 하듯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슬프고 괴로운 일, 곧 시련에 봉착했을 때, 이 시련을 통해 사람이 단련되고, 그리하여 더욱 굳은 마음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기독교 교부철학의 대표적 인물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통해 인옥의 정신은 동서를 통하는 공통분모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재복이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은 것이지만, 전후 관계로 볼 때 이처럼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당신이 슬프고 또는 괴로운 일에 부닥쳤거든, 지금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의 시련이라고 생각하라. 쇠는 닳아야 굳어진다. 당신도 지금의 그 시련을 통해서 더욱 굳은 마음을 얻게 된다.<sup>30)</sup> [『아우구스티누스』]

또 셰익스피어는 도저히 극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정신적 아픔이라고 해도, 그것을 ‘운명’이라고 수용하고 인내할 수 있다면 그때는 그 이전의 아픔마저도 ‘유희’로 승화된다고 한다. 여기서는 ‘운명’이라고 달관하는 것을 통해 아픔을 견디어낼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인옥을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인정하기 때문에 ‘전생의 업보’라고 수용하는 것이 여기서는 ‘운명’이라고 바뀌었을 뿐이고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점에서는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이재복이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전후관계를 통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에 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치료할 도리가 없게 되었을 때의 슬픔은 최악을 각오하면 도리어 끝장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을 운명이라고 인내하면 그 아픔

30)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p.242.

까지 유희(遊戱)로 되고 만다. 도둑을 맞고도 웃는 자는 도둑질한 자에게서 얼마만큼을 도루 찾는 셈이 되지마는, 부질없는 탄식은 이쪽에서 먼저 풀어 버린다손 치더라도 제 몸을 제 손으로 벌거벗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sup>31)</sup>  
[『세익스피어』]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재복은 인육의 정의와 그 의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다음으로, 인육바라밀은 가장 뛰어난 장엄이고 좋은 묘약이라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고, 아울러 초기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과 부루나 존자의 인육 실천을 소개하고, 아우구스티누스와 세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육바라밀을 ‘보편적 정신’으로 해석한다.

## V. 결론

이 글에서는 금당 이재복의 교학(불교)사상의 기본적 입장에 대해 알아보고, 그의 교학사상 가운데 보시바라밀과 인육바라밀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이재복의 교학사상의 기본적 입장이 「한국불교 포교의 방향」의 구체적 실천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재복이 대전불교연수원에서 일요법회를 개최한 것은 불교대중이 불교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이 일요법회에서 강의한 자료가 우리말 우리글로 풀어서 저술된 것이며, 강의자료를 배부한 것은 포교용 교재를 만들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대전불교연수원에서 일요법회를 개최한 것은 전문성을 가진 불교 신도, 곧 포교사를 양성하고 재교육하겠다는 그의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의도에서 출발한 강의자료가 모여서 그의 전집(2권-6권)에 실린 것

31)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p.242.

이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한국불교 포교의 방향」에서 6가지를 말한 것이 모두 충족된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4가지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므로 이재복의 교학사상의 기본적 입장은 「한국불교 포교의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이재복의 보시바라밀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이재복은 세 가지 보시(재시, 무외시, 법시), ‘무주상보시’, ‘삼륜의 청정함’을 설명하는데, 이는 불교개론서에서도 보시바라밀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기본적 설명’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보시바라밀을 ‘보편적 정신’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플라톤의 말’로 보시를 설명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플라톤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면 자신에게도 행복이 온다고 하였는데, 이는 보시를 다른 측면에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으로, 이재복은 보시바라밀의 다양한 측면을 3가지로 접근한다. 첫째 보시를 행하는 마음 자세와 바람직하지 못한 5가지 마음 자세이고, 둘째 가난한 사람의 보시바라밀과 음식 보시의 중요성이다. 가난한 여인 난타(難陀)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워서 등(燈)을 보시하였는데, 이 ‘등’은 다른 ‘등’이 다 꺼져도 홀로 빛나고 있었다. 이는 보시에서 외형보다는 마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해서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는 것도 보시의 행위에 포함되고, 다른 사람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이것도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는 음식을 보시하는 것이 목숨을 보시하는 것처럼 큰 의미가 있다.

셋째,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쇼카왕의 전생의 보시행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느 장로 비구의 몸을 몸소 씻어주었는데, 이 장로 비구는 몸이 더럽고 냄새가 나서 같은 사찰에 있는 비구로부터도 외면을 받았

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래(부처)가 세간에 출현한 이유가 바로 곤궁하고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인도를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왕도 전생에 행한 작은 보시 공덕으로 인해 그와 같은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이재복의 인욕바라밀에 대한 관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재복은 인욕바라밀은 가장 뛰어난 장엄이고 좋은 묘약이라는 내용을 소개한다. 그러고 나서 초기불교에 나타난 석가모니 부처님과 부루나존재의 인욕 실천을 소개하고, 아우구스티누스와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욕의 보편적 정신’을 제시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슬프고 또는 괴로운 일을 만나면 그것을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굳은 마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인욕을 통해서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셰익스피어는 치료할 도리가 없을 정도의 슬픔이라고 해도 운명이라고 달관하면 그것은 ‘유희’로 승화될 수 있다고 한다. 이도 인욕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고 그래서 그 아픔조차도 ‘유희’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재복은 인욕바라밀을 불교의 영역에서만 해석하지 않고 ‘보편적 정신’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이재복의 보시바라밀과 인욕바라밀에 대한 이해의 특징은 불교적 세계에만 안주하지 않고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서양 사상가(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 셰익스피어)의 주장도 수용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불교의 보시바라밀과 인욕바라밀을 조금 더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고자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보시바라밀의 경우에는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생활불교에 적합한 구체적 사례(가난한 사람의 보시와 음식 보시의 중요성)를 발굴하고자 한 점이 이재복의 보시바라밀 이해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곧 ‘보편적 정신’과 ‘구체적 사례’의 제시는 ‘학문의 일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관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

편적 관점'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구체적 양상'을 제시할 때 그 관점이 명확하게 전달된다. 이재복이 추구한 불교학의 세계도 이러한 '일반적 관점', 곧 '보편적 정신(서양 사상가의 주장도 수용)'과 '구체적 사례(보시바라밀과 인욕바라밀의 사례)'를 동시에 갖추는 것을 추구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재복이 추구한 것이 비록 완성된 형태로 그의 전집에서 드러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보편적 정신'과 '구체적 사례'를 동시에 추구했다는 단서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 - 대장경강해자료집1』 2권, 금당 이재복선생 추모 사업회, 2009.
- 『침묵 속의 끝없는 길이어 - 문학집』 7권,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 2009.
- 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개정판 불교학 개론』, 동국대출판부, 1988, 2012.
- 김영호 엮음, 『어느 그리움에 취한 나비일러노 - 금당 이재복의 입체적 조명과 재평가』, 작은숲, 2020.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편, 『불교의 이해와 실행』, 조계종출판사, 2004.
- 김방룡, 「금당 이재복의 생애와 불교사상의 특징」, 『충청문화연구』 14집,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2015.
- 김방룡, 「우리시대의 보살승, 용봉 재복」, 김영호 엮음, 『어느 그리움에 취한 나비일러노 - 금당 이재복의 입체적 조명과 재평가』, 작은숲, 2020.
- 윤영우, 「용봉대종사와 불교」, 김영호 엮음, 『어느 그리움에 취한 나비일러노 - 금당 이재복의 입체적 조명과 재평가』, 작은숲, 2020.
- 이병욱, 「불교사상에 나타난 자비, 인욕, 용서」, 고재백 외 편,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 새물결플러스, 2022.
- 황의동, 「교육에 바친 일생, 금당 이재복 선생」, 김영호 엮음, 『어느 그리움에 취한 나비일러노 - 금당 이재복의 입체적 조명과 재평가』, 작은숲, 2020.

## Abstract

A Study on the Doctrinal Discipline of Geumdang Lee Jae Bok  
: Focusing on Dāna Pāramitā and Kṣānti Pāramitā

Lee, Byung-wook  
(Joong-Ang Sangha University Lecturer)

In this article, I will look at Geumdang Lee Jae Bok's perspectives on dāna pāramitā and kṣānti pāramitā in his doctrinal discipline.

Chapter 2 reveals that the basic position of Lee Jae Bok's doctrinal discipline is expressed in “the missionary direction of korean buddhism”. These include that buddhists must have correct views on buddhism, that missionary work must be done in korean language and korean writing, and that th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lecture materials is related to missionary teaching materials. Ultimately, these activities are connected to his intention to train and re-educate high-quality buddhists, that is, missionaries. And Lee Jae Bok established Daejeon Buddhist Training Center and presided over as many as 1,998 buddhist services there.

Chapter 3 looks at perspectives on dāna pāramitā. Lee Jae Bok seeks to interpret dāna pāramitā based on the universal spirit. This is clearly shown in the case of trying to explain dāna by quoting Plato's words. Lee Jae Bok also explains dāna pāramitā from various aspects, but what stands out most is that it is dāna of the poor, and that dāna of food involves giving one's life.

Chapter 4 looks at the perspective on kṣānti pāramitā. Lee Jae Bok introduces the argument that kṣānti pāramitā is the most outstanding

and good elixir. At the same time, in kṣānti pāramitā, he attempts to view kṣānti pāramitā from a universal spirit by quoting the words of Augustinus and Shakespeare.

Key words

correct views, missionary teaching materials, missionaries, the universal spirit, Plato's words, dāna of food, good elixir, Augustinus.

논문투고일 : '24. 4. 30. 심사완료일 : '24. 5. 22. 게재확정일 : '24. 5. 22.